주말 인터뷰 | 프로야구 KT 황재균 & 프로축구 전북 김상식 코치

“나만 잘하면 상위권 도약 내년엔 30-30클럽 도전”

〈30홈런-30도루〉



올 시즌을 앞두고 미국에서 돌아와 KT 위즈와 프리에이전트 계약한 황재균의 첫해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득점권에서 부진했던 올해 모습을 절치부심해 내년 30홈런·30도루 클럽 가입을 노리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프로야구 KT 황재균

100타점도 못친 2018시즌…기대치 못 미쳐
올겨울 체지방률 감소 목표로 몸만들기 올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미국 메이저리그 1년을 뒤로 한 채 KBO리그 복귀. 황재균(31)은 올 시즌에 앞서 KT와 4년 총액 88억 원의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었다. 남다른 각오로 시즌을 맞이했고 142경기에서 타율 0.296, 25홈런, 88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84를 기록했다. 3할 타율·30홈런·100타점에 모두 약간씩 부족했지만 중심타선에서 KT를 이끌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맞이한 첫 해를 돌아보는 황재균의 소회를 들어봤다.

●스스로도 진단하기 힘들었던 부진

“KT는 나만 잘하면 올라갈 팀이다.” 스프링캠프 당시 황재균의 자체평가였다. 2015년 1군 진입부터 3년 연속 10위에 머물렀던 KT는 올해 창단 첫 탈꼴찌에 성공했다. 하지만 9위라는 성적은 ‘도약’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시즌 최종전에서야 9위를 간신히 확정했을 뿐, 시즌 막판 내내 꼴찌 전쟁을 펼쳤다. 황재균이 만족할 리 없었다.

“큰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했다는 점에만 의미를 두고 싶다. 나머지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9위에 안주하고 싶은 선수가 어디 있겠나. KT가 9위를 하기 위해 나를 영입한 것은 아니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올 시즌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강한 자책의 이유는 ‘해결사 본능’ 약화였다. 황재균의 올 시즌 득점권 타율은 0.252에 그쳤다. 타격 능력이 만개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롯데 자이언츠에서 기록했던 득점권 타율은 0.331이었다. 소위 ‘전성기’에 비해 8푼 이상 떨어진 셈이다. 스스로도 원인을 진단하기 힘들 정도로 클러치 상황의 부진이 거듭됐다. 황재균은 “팀의 기대치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100타점은 기록해야 했다. 그랬다면 팀 순위도 조금은 더 높은 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 점이 두고두고 아쉽다”고 반성했다. 외부에서는 고정된 타순이나 수비 포지션이 없던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는다. 황재균은 올 시즌 2번과 9번을 제외한 모든 타순에 나섰다. 4번부터 6번까지 533타석으로 가장 많은 비중이었지만 1번으로도 33타석에 나섰다. 붙박이 3루수로 기대를 모았지만 1루수로도 16경기에 출장했다. 황재균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양한 위치를 오간 건 야구를 시작하고 처음이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팀이 그런 역할을 필요로 한다면 선수는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맞다. 타점 부진의 핑계를 잦은 변화에 두고 싶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듬해 목표는 30-30클럽!

KT의 정규시즌은 지난 10월 13일 끝났다. 황재균의 2019시즌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찰나의 휴식을 보낸 뒤 내년 준비에 나섰다. 매년 겨울마다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 운동하는 루틴은 올해도 이어진다. 황재균의 올해 목표는 단순한 벌크업이 아니다. 체지방률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다만 근육량은 유지해야 하기에 무작정 식이요법을 할 수도 없다. 결국 웨이트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다.

“공격과 수비, 주루 등 모든 면에서 팀의 대표가 돼야 한다. 벌크업으로 홈런 개수는 늘어났지만 유연성이나 민첩성은 떨어졌다. 내년에는 한 눈에 봐도 날렵해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20홈런·20도루 클럽 가입은 기본이고, 내심 30홈런·30도루 클럽 가입까지도 노려볼 계획이다. 그렇다면 팀도 하위권 경쟁을 넘어선 위치에 있을 것이다.”

황재균은 롯데 시절이던 2016년 27홈런·25도루로 생애 첫 20·20클럽 가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30·30클럽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입단 3년차였던 우리 히어로즈 시절 30도루를 기록한 것이 전부이며 30홈런을 기록한 적은 없다. 다소 높은 목표다.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고 선을 긋던 지난해와 딴판이다. 그만큼 올해 모습에 스스로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강철 신임감독 이하 새로운 코칭스태프가 KT의 2019시즌을 꾸려가게 됐다. 황재균은 중심타선의 축이 되어야 한다. 그가 스파이크 끈을 더욱 강하게 동여매고 있는 이유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황재균 ▲생년월일=1987년 7월 28일 ▲출신교=이수중~경기고 ▲선수 경력=현대 유니콘스(2006~2007) 히어로즈(2008~2010) 롯데 자이언츠(2010~2016)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2017) KT 위즈(2018~) ▲KBO리그 통산 성적=1326경기 타율 0.287, 140홈런, 682타점 ▲국가대표 경력=2014인천아시안게임, 2015 WBSC 프리미어12,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모라이스 감독과 새 도전 함께 ‘닥공 시즌2’ 만들것”



김상식 전북현대 코치에게 2018년 겨울은 ‘이별의 계절’이다. 현역 황혼기부터 코치 초년병 시절까지 10년간 함께 해온 최강희 감독이 중국으로 떠났다. 김 코치는 전북에서 보낸 10년을 회상하며 다음 10년을 기약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전북 김상식 코치

모라이스 감독과 선수 사이 가교 역할 막중
최강희 감독과 쌓아온 ‘전북왕조’ 이어갈것

전북 현대 김상식(42) 코치의 선수 때 별명은 ‘독사’였다. 유머와 재치가 넘치고 늘 친근하다고 해서 ‘식사마’로 불리기도 했지만 경기장에만 들어서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깐깐한 수비수였다. 강력한 대인 방어와 악바리 정신은 정평이 났었다. 1999년 입단 때부터 주전으로 활약하며 성남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다. 팀 리빌딩 과정에서 이동국(39)과 함께 방출됐다. 2009년 새로 둥지를 튼 곳은 전북이다. 한물 간 듯 했지만 그는 악바리 정신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지난 5년은 코치로서 전북 왕조를 구축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올 연말 변화의 물결이 몰려왔다. 최강희(59) 감독이 중국 리그로 떠났고, 포르투갈 출신의 조제 모라이스(53) 감독이 전북의 지휘봉을 잡았다. 김 코치는 낯선 환경에서 새 시즌을 맞는다.

김 코치는 10년의 세월을 일단락하면서 전성기를 함께 한 최강희 감독과 절친 이동국, 그리고 전북 구단과의 소중한 인연을 솔직하게 들려줬다.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김 코치의 1인칭으로 싣는다.

●최강희 감독과 함께 한 10년의 추억

성남에서 밀려난 10년 전 서울 목동의 한 커피숍에서 감독님(최강희)을 만났다. 자신의 선수 시절 얘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축구계도 고참 선수들을 대우해주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그게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서 같이 좋은 팀을 만들어보자고 했다. 그렇게 사제의 인연을 맺었다.

감독님은 내게 ‘등대’ 같은 존재다. 내가 갈팡질팡할 때 이끌어주신 분이다. 또 선수로, 지도자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시고, 불빛을 비춰주신 분이다.

감독님은 무뚝뚝해 보이지만 정이 많다. 자상하고, 섬세하다. 우리 팀이나 상대팀 전력을 파악하고 멤버를 짤 때 보면 정말 탁월한 것 같다.

이제 중국으로 떠나신다. 14년간 고생 많으셨고, 또 많은 걸 이루셨다. 여기 남은 사람들은 감독님을 아쉬워한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걸 존중한다. 중국 가서도 좋은 팀 만들어 우승도 하시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리와 마주쳤으면 좋겠다.

●죽마고우 이동국

이동국과의 첫 인연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다. 나는 와일드카드로 합류했다. 당시는 서먹한 사이였고, 대표팀에 소집돼 가끔 만났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 둘은 아픔을 겪었다. 둘 다 엔트리에서 탈락한 것이다. 그 후 상무에서 2년간 같이 지냈다. 동병상련 같은 게 있었다. 그 때 많이 친해졌다.

이동국은 ‘죽마고우’다. 나이로는 내가 선배이지만 배울 게 많다. 20년 가까이 다툼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곁에서 본 동국이는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체력도 타고 났다. 잘 먹고, 잘 자는 선수다. 그게 장점이고 큰 복이다. 자기관리도 철저하다. 내가 해주는 건 그가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1, 2년 더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10년과 앞으로 10년을 함께 할 전북

전북에 온 건 전화위복이다. 꼭 재기를 하고 싶었다. 성남이 보란 듯이 당당히 서고 싶었다. 2009년 K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성남과 맞붙어 이겼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와 전북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전북은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이 걸어 온, 그리고 걸어 가야할 ‘길’ 같은 존재다. 지난 10년간 우승도 하고 좌절도 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했다. 이제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함께 걸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김 코치는 모라이스 감독과 손잡고 2019년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감독과 선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외국인 감독이기에 더 노력해야한다. 그는 “최강희 감독님이 쌓아놓은 큰 업적에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또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닥공2(닥치고 공격)를 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

김상식 코치 ▲생년월일=1976년 12월 17일 ▲출신교=경남공고~대구대 ▲선수 경력=성남 일화(1999~2002년, 2005~2008년) 상무(2003~2004년) 전북 현대(2009~2013년) ▲프로통산 성적=458경기출장 19골·17도움 ▲대표 경력=시드니올림픽(2000년) 독일월드컵(2006년) 아시안컵(2007년) ▲지도자 경력=전북 코치(2014~현재)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